

국가리스크 고조 적극 대응해야



은 기 운
(매일경제신문사 경제학박사)

한국의 국가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특히 지난 3월 중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외평채 가산금리가 상승하며, 외국인 자금이탈로 주가가 급락한데서 단적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해외자금을 조달하기가 이전처럼 용이하지 않게 됐다. 이라크 전쟁 조기종결 전망으로 3월 하순 이후 환율과 주가, 금리 등이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의 경제, 군사·외교적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이들 변수가 다시 요동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위험도 때문이다.

국가위험도가 높아진 원인은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이다.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에 들어가고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는 등 벼랑끝 전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수위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 종료 후 미국의 군사적 공격 목표가 북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국내외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

둘째로는 한국의 경제지표 악화다. 경제성장률은 작년 하반기 이후 급랭하고 있는 기업 및 소비자의 체감경기 등을 고려할 때 올해는 작년(6.3%)의 절반 정도로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올 1월 7.7%나 감소한 설비투자나 도소매판매 부진, 작년

5월 이후 9개월째 하락하고 있는 선행지수전년동월비 등은 앞으로 경기하강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다.

그간 외환보유액 증가의 원천이 돼 왔던 경상수지 흑자도 작년 12월부터는 적자로 돌아섰다. 올들어 1, 2월 두달 연속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지난해 사상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던 서비스수지는 올들어서도 매월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 경상수지 적자는 기조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여파로 외환보유액도 올 3월 중순에는 1년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원유 등 국제원자재값 상승 등의 여파로 소비자물가도 올들어 두달 동안 전년말에 비해 1.2% 포인트나 올라, 이번이 없는 한 정책당국의 올 억제 목표 3%안팎은 지킬 수 없게 됐다. 성장률, 경상수지, 물가 등 소위 거시경제의 '세 마리 토끼'가 모두 위협받고 있는 것은 전두환 정권이 집권한 80년 이후 처음이다. 외환위기 직후에도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물가는 급등했지만 무역수지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해 외환부유액의 급속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국가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기업경영 환경 및 금융시장의 불안이다. 검찰의 SK수사결과 발표 이후 다른 대기업들도 수사대상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외국인들을 한국 투자에 매우 조심스럽게 응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SK계열사 채권이 포함된 펀드와 카드사 경영악화에 따른 이들 관련 펀드에 대한 환매요구가 거세져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도 국가 위험도 상승의 한 원인이다. 특히 44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7%로까지 상승한 가계부채는 한국경제 불안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국내외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사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지난 2월 A3긍정적(Positiv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조정했고, 4월 중순의 실사를 통해 실제로 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출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한국투자자에 대한 위험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다.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각 경제주체들은 높아지는 국가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경제, 외교군사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황을 미리미리 알고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

우선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고 위기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환율변동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물환이나 콜옵션 등의 기법을 활용해 손실을 극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외화예금이나 환율변동보험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도 있다. 국내외 채권시장 동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금리급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 금리스왑이나 금리선물 등 파생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회사채시장이 위축될 것에 대비해 발행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특히 카드채 등의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경제전체 불안의 뇌관이 되고 있으므로 채권투자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업은 정도경영과 구조조정 등 시장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첨단산업 및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책당국, 기업, 연구기관 간에 기술정보를 공유하는 등 장기적 기술력 향상에 나서야 한다. 구조조정을 계속하여 기업성과를 높이면서 좋은 시장평판을 얻도록 해야 한다. 기업내 위기관리 전담팀을 설치해 이라크 전쟁과 북핵문제, 금융시장 불안, 실물경제 위축 등 국가리스크 상승의 근원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만반의 대응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당장 해야 할 시급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